

4/30/17

설교 제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2:1-18

- (히 2: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 (히 2:2)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 (히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 (히 2: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 (히 2:5)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 (히 2: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 8:4 이하
- (히 2:7)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 (히 2:8)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 (히 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 (히 2:10)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 (히 2: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 (히 2: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절관주** 시 22:22

- (히 2: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 (히 2: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 (히 2: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 (히 2:16)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 (히 2: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 (히 2: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절관주** 시 18:2, 사 8:18, 요 6:37, 요 17:2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하는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만유의 상속자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강력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권위있게 생각하고 신뢰하는 구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세주라고 증거합니다.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4 절까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라고 강력히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5-18 절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사역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두번째 부분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 (히 2:5)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 (히 2: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히 2:7)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 (히 2:8)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 (히 2:9)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는 천국을 천사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시편 8 편을 인용합니다.

- (시 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시 8: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
- (시 8: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시 8: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 (시 8: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시 8: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 오히려 인간이 만물 밑에 들어가 그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렇지라도 결국 인간은 원래대로 영광스럽게 회복되어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 시편 8 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보다도 못하게 낮고 천한 이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하게 하시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안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히 2:10)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구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히 2: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 2: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 2: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불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히 2: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 (히 2: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 (히 2:16)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 (히 2: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 (히 2: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1.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기 위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2.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4. 이 세상에서 시험받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도우기 위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가난, 비천, 모욕, 핍박, 비난, 고난, 죽음 등을 경험하심으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를 가까이 보아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보잘 것 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동족들을 핍박했습니다.

동족의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 유대인들 중 일부는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 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 하는 크리스찬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신비에 대해 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는데 그 계획이란 아들을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어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후에 보상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성육신 사건)과 고난 받으신 것(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으며 또한 이 계획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의 뜻은 안성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식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꼭 맞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같이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구원받아 영광 가운데 들어갈 많은 아들들과 같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려는 일념으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은 아랑곳없이 일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동족의 핍박이 심화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도 갈등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 버릴까? 어쩔까? 흔들립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내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단 말인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라면 내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왜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회의합니다.

유대인 저들은 능력자, 권능자, 심판자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유대인 저들은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해 줄 메시아,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전해진 메시아는 잠깐동안이나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신 예수입니다.

이런 연유로 남아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조차도 고난받으시는 예수가 어떻게 천사보다 우월한가에 대한 회의를 품습니다.

저들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히 2: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세상 일을 이루어가는데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꺼려집니다.

세상 어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기에 deserve 하려면은 웬지 그런 이들에게는 마음문이 닫혀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가슴에 품고 소중히 간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귀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는 모자란 제 생각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우리를 살려내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의 독생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이런 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만 세상 것들 좀 내려 놓읍시다.

종국에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 순수하게, 계산하지 말고,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 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분들께 무엇을 더 달라고, 무엇을 더 해 달라고 보채지 맙시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분들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 분들이 알아서 우리에게 favor 를 주실 것입니다.

그 목자에 그 무리들이라고 우리 다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지키며 이 세상 건디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